

## 모녀간 자기분화의 세대 간 전이와 여대생의 자기분화, 세대 간 가족관계가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김 혜 원†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자기분화의 세대 간 전이가 일어나는지, 여대생의 자기분화와 세대 간 가족관계가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모녀 132쌍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각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 딸의 자기분화 총합 간, 여대생의 자기분화 · 세대 간 가족관계 · 자아존중감 · 주관적 안녕감 총합 간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둘째, 어머니의 자기분화는 딸의 자기분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여대생이 세대 간 친밀할수록, 자기 입장 견지 능력이 높을수록, 정서적 거리두기를 덜 할수록, 세대 간 삼각관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대생이 세대 간 친밀할수록, 세대 간 개별화될수록, 자기입장 견지능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세대 간 전이, 자기분화, 세대 간 가족관계, 자아존중감, 주관적 안녕감

\* 본 연구는 이화여대 대학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김혜원,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수료

Tel: 010-7371-0676, E-mail: wisdombase@hanmail.net

대학생 시기는 후기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인생의 발달 단계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불안정한 인생의 변화기이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대학생들이 심리적 부적응을 겪기 쉽다(이은희, 2011).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넘어서서 청년기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곽윤영, 정문자, 2010; Bucx & Van Wel, 2008)과 가족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건강한 관계 형성 및 독립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는데(Grolnick, 2003), 이는 대학생 시기의 적응을 살펴볼 때 가족의 역동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체계이론에서도 가족을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일대일의 특정한 관계로 설명하기 보다는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하나의 체계로서 간주하며, 부적응하는 개인이나 가족 내 갈등문제 등은 가족체계라는 전체 차원에서 이해하고 다루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Goldenberg & Goldenberg, 2002; 김광수, 김수아, 2006, 재인용). 이러한 관점에 기반하여, 원가족의 경험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은 가족 구성원이 상호작용·적응하는 관계 패턴이 세대전이 됨으로써 자녀의 사회적·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Allison & Sabatelli, 1988). 이러한 시각을 지닌 대표적인 학자가 Bowen이다. Bowen 이론의 핵심은 자기분화로 심리내적 차원과 대인 관계적 차원을 포함한다. 심리내적 차원의 분화는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서적 반응성(emotional reactivity)과 자기입장 견지 능력(the ability to take I position)의 개념으로 구성된다. 대인 관계적 차원의 분화는 자신과

타인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서적 거리두기(emotional cutoff)와 타인과의 융합(fusion with others) 개념으로 구성된다. 자기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자신의 정서에 압도당하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유지할 수 있으며, 타인의 가치와 신념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성보다는 감정에 지배되고 반응한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이 확고하지 않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잃을까 염려하여 스스로를 타인으로부터 고립시키거나, 반대로 타인과 융합된다. 이렇게 타인과 융합되는 사람은 타인에게 과도한 개입을 하거나 정서적으로 속박 당하여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의 정서적 만족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Bowen, 1994).

이렇게 Bowen이 주요 개념으로 제시한 자기분화의 세대 간 전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자기분화가 자녀의 자기분화와 상호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나(조영경, 1999; 하상희, 정혜정, 2008; Bartle & Anderson, 1991; O-Yang & Wu, 2012; Peleg, 2005)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정경연, 2007; Tuason & Friedlander, 2000) 관련이 있다고 해도 그 상관정도가 미미하게 나타나(하상희, 2007) 분화수준이 세대 간에 전이가 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자기분화의 세대 간 전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부모와 자녀를 모두 대상으로 한 것이 드물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다음으로 자기분화와 적응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분화가 개인의 정신건강

강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요소라는 연구(이은희, 2011; 이지민, 2010; 최인재, 2005), 자기분화가 높은 심리적 안녕과 관련 된다는 연구(Elieson & Rubin, 2001; Skowron, Holmes, & Sabatelli, 2003; Skowron & Schmitt, 2003; Tuason & Friedlander, 2000), 낮은 자기 분화가 심리적 고통과 관련된다는 연구(Kim-Appel, Appel, Newman, & Parr, 2007; Murdock & Gore, 2004) 등이 있다. 위의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자기분화가 개인의 적응과 정신건강·심리적 안녕·대인관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Bowen은 가족 문제를 보는 시각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했으나 Bowen의 이론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 패턴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세대 전수과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 패턴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세대 간 가족관계'를 제시한 Williamson(1981)에 의해 주로 국외에서 이루어졌다. 세대 간 가족관계는 개별화와 친밀감과 같은 관계적 패턴이 부모-자녀 사이의 사회적 학습을 통해 세대를 거쳐 재생산되는 것을 뜻하고, 대인 관계적 기술과 상호작용 패턴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족관계에서 개인의 자기분화에 영향을 미친다(Williamson, 1981). Williamson과 Bray(1988)는 가족관계의 질과 특징에 대한 개인의 현재 시각을 중요시 하였는데, 이 시각을 기반으로 부모-자녀 관계패턴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세대 간 간섭(intergenerational intimidation)은 개별화와 친밀감의 결핍을 반영하는 것으로 은밀한 충성을 요구하고, 삼각관계처럼 가족과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심리적 고통과 생활 스트레스를 더 많이 유발하게 된다(Bowen, 1994; Harvey,

Curry, & Bray, 1991). 두 번째, 세대 간 친밀(intergenerational intimacy)은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경계를 가진 자발적인 근접성으로 정의된다. 친밀감은 자기노출과 상호존중을 자유롭게 나타내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개별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부모 각자의 개인적 인간됨과 사생활 및 개인적 경험을 알아가는 것을 나타낸다(Williamson & Bray, 1988). 세 번째, 세대 간 삼각관계(intergenerational triangulation)는 융합된 두 사람의 관계에 협력자(enlist)라는 세 번째 사람이 희생과 연합의 형태로 개입됨으로써, 해소되지 않은 둘 사이의 긴장감을 세 번째 사람에게 전달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융합-개별화(intergenerational fusion-individuation)는 원 가족과 핵가족의 관계적 맥락에서 점점 분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개별화는 중요한 타인에 대해 지나치게 책임감을 느끼거나 그 대상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관계 안에서 능동성을 지니며,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융합은 중요한 타인에게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관계로 압박감을 느끼는데, 이로 인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책임감을 과하게 느끼는 모습을 보인다(Harvey, Curry, & Bray, 1991).

이러한 가족관계의 영향력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보면, 원 가족에서 경험된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관계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개인의 정서적 건강(김순기, 2001; 전영주, 1998; 하상희, 2007)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정과 이은진(2002)은 대학생의 건강 지표가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관함을 확인하였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감정적 지지는 정신건강과 정적 상관을,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은 정신건강과 부적 상

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국외 연구도 살펴보면, 자녀가 지각한 세대 간 가족관계가 개인의 신체적 기능과 심리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Bowen, 1994; Williamson & Bray, 1988), 세대 간 가족관계 패턴이 개인의 역기능적 증상과도 관련된다고 보고 하였으며(Larson & Wilson, 1998; Wichstrom & Holte, 1995), 가족 안에서 세대 간 융합과 삼각관계를 경험하는 대학생들이 신체적·인지적으로 무능하고 대학생활 적응력도 부족함을 밝혀냈다(Smith, Ray, Wetchler, & Mihail, 1998).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이전 세대의 가족 상호작용은 다음 세대에 절대적으로 전수되기 보다는 그것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Grych & Fincham, 1993; Harvey, Curry, & Bray, 1991), 세대 간 가족관계는 가족 과정이나 패턴 전수에 대한 연구에서 자녀의 지각을 반영할 수 있는 주요한 도구라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국내 연구는 세대 간 가족관계와 아동의 문제 행동(정경연, 심혜숙, 2007), 세대 간 가족관계와 대학생활 적응을 살펴본(이정희, 정경연, 유희정, 2007) 연구에 불과하다. 국내외 연구에서 Williamson의 ‘세대 간 가족관계’ 보다 Bowen의 ‘자기분화’를 이용하여 가족 문제의 세대 간 전이를 점검하는데 더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Bowen(1994)은 개인의 부적응 행동이나 증상 및 관계에서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원인을 자기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설명하였고, 자기분화가 개인의 정신건강이나 심리적 안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과 더불어 개인의 자기분화에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부모와 자녀가 맺고 있는

구체적인 관계 패턴에 대한 정보를 보완해주는 세대 간 가족관계가 대학생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한 개인이 현재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다양할 수 있다. 발달적 과업 성취를 통해 그것을 파악하기도 하고, 정신 병리적인 것이 없는 상태로 그것을 정의하기도 하나(Masten, Obradovic, & Burt, 2006), 긍정심리학에서는 이 범주를 넘어 개인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정신건강에 더 중요하다고 본다(허재홍, 2009). 이러한 내부 요소를 측정하는데 널리 쓰이는 개념이 주관적 안녕감이다(조공호,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학의 견해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내적인 적응 영역의 지표로 주관적 안녕감에 초점을 맞춰 자기분화와 세대 간 가족관계의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성인기의 주요 과업과 행동을 예측한다는 점(Chung & Yuh, 2009)과 자아존중감이 정신건강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Rosenberg, 1965)에서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도 함께 알아보려고 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자기분화와 세대 간 가족관계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는 직접적인 연구결과는 없지만 자기분화와 세대 간 가족관계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이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할 때 그 관련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자기분화와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실증적으로 여러 연구들(김갑숙, 전영숙, 이철우, 2009; 남상인, 2003; 이정희, 정경연, 유희정, 2007)은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자아존중감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Aquilino(2006)는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

자녀들의 독립에 대한 부모의 수용과 지지는 이들의 높은 자아존중감, 개별화, 사랑의 감정, 가치감과 연결되고, 자율성에 대한 부모의 부인은 대학생들의 적대감과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 진입기에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안전함, 이해받음, 사랑받음, 필요할 때 기꺼이 부모의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비록 이 시기의 부모-자녀 관계가 이전까지의 성인 부모-자녀의 자녀관계에서 성인 부모-성인 자녀의 관계 구도로 변화하기는 하지만, 성인 진입기는 여러 영역에서 성인기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존중, 수용, 관심 및 자신의 성공적인 경험 등에 의해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는 것으로(이정희, 정경연, 유희정, 2007),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갖게 된다. 따라서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이 반영되는 세대 간 가족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리라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런데 Gilligan(1982)은 건강하지 못한 가족 배경이 남성보다 여성의 정서적 건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Ryff와 Keyes(1995)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여성들의 높은 주관적 만족감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또한 선행연구자들(Helgeson, 2002; Leaper, 2002; Weiten, Lloyd, Dunn, & Hammer, 2009)의 보고에 따르면, 남성은 타인들과 독립된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는 반면 여성은 중요한 타인들을 자기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상호 의존적인 자기 도식을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수행이나 능력에 대한 타인의 피드백에 대해서도 남성보다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남성보다 긍정적 자아존중감 발달에 불리하다고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대인 관계의 영향력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두드러질 것이라 예측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자기분화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은 그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으로 대부분 모(母)라고 한 Bowen(1988, 2005)의 이론(정경연, 심혜숙, 2007, 재인용)과 세대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두 세대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한 선행연구(전영주, 1998; Anderson & Sabatelli, 1995)를 기반으로 하여 어머니의 자기분화를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세대 간 전이는 모 세대의 자기분화가 딸 세대의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자기분화의 세대 간 전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대생이 평가한 본인의 자기분화, 자신이 지각한 가족관계 패턴이 개인의 정신건강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Leary & Baumeister, 2000; 허재홍, 2009, 재인용) 및 주관적 안녕감(Arthaud-Day, Rode, Mooney, & Near, 2005)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모의 자기분화, 여대생의 자기분화 및 세대 간 가족관계와 여대생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모의 자기분화는 딸의 자기분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여대생의 자기분화와 세대 간 가족관계가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방 법

###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 E 여대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50명의 학생들에게 학생 설문지와 어머니 설문지를 함께 배부하였다(총 250쌍). 쌍으로 수거된 설문지는 133부였고, 112부는 학생 설문지만 수거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133쌍의 설문지 가운데 무응답 문항이 많은 한 부를 제외하여 최종 132쌍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고로 어머니 설문지를 제출한 학생( $n=132$ )과 그렇지 않은 학생( $n=112$ ) 간에 자기분화, 세대 간 가족관계, 자아존중감, 주관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t$ -test 한 결과,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48.8세( $SD=5.5$ 세), 자녀의 평균연령은 20.58세( $SD=2.7$ 세)였다. 학생의 거주지는 서울이 96명(7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지역이 29명(22.0%), 기타 지역이 7명(5.3%)을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거주지 역시 서울이 63명(47.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경기 지역은 33명(25%), 기타 지역은 36명(27.3%)을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직업으로는 전문직이 8명(6.1%), 전업주부가 75명(56.8%), 자영업이 14명(10.6%), 기타직업이 25명(18.9%)으로, 전업주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부모님과 동거여부는 어머니와만 동거하는 학생이 9명(6.8%), 부모모두와 동거가 92명(69.7%), 자취 등으로 현재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지 않은 기타 학생 수가 31명(23.5%)을 차지하였다.

## 측정도구

### 자기분화

하상희와 정혜정(2008)은 Chung과 Gale(2006)이 번안한 Skowron과 Schmitt(2003)의 DSI-R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Revised) 척도를 어머니와 대학생 자녀에 맞게 문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상희(2007)가 사용한 어머니용과 대학생용 척도를 사용하였고, 이 척도는 심리내적 차원(정서적 반응성 11문항, 자기입장 견지 능력 11문항)으로 총 22문항)과 대인관계 차원(정서적 거리두기 12문항, 타인과의 융합 12문항)으로 총 24문항)을 포함하며, 총 46문항이다. 척도는 어머니용, 대학생용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자기분화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분화 수준이 높다고 해석하기 위해 정서적 반응성, 정서적 거리두기, 타인과의 융합 3개 하위영역의 점수를 역 채점 처리하였다. 하상희(2007)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전체 문항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82, 하위척도 별 내적 일치도는 .64~.70, 여대생의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86, 하위척도 별 내적 일치도는 .61~.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77, 하위 척도 별 내적 일치도는 .55~.68이었다. 여대생의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84, 하위척도 별 내적 일치도는 .64~.74로 나타났다.

### 세대 간 가족관계

세대 간 가족관계는 Bray, Williamson과 Harvey가 1984년 개발한 PAFS를 바탕으로 Bray와 Harvey가 1992년에 개발한 PAFS-C(Personal

Authority in the Family System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PAFS-C는 대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도구이다. PAFS-C는 7개 하위요인, 전체 8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의 자기 보고형 질문지이다. 정경연(2007)은 7개 하위 요인 중 가족 안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세대 간 가족관계를 묻는 4개의 하위 요인과 47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정경연은 PAFS-C를 번역하여 전문가들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쳤고, 47개의 문항 중 전체 신뢰도를 저해하는 1개의 문항을 제외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정경연(2007)이 재구성한 ‘항상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Likert 척도의 46개의 문항(세대 간 간섭 총 8문항, 세대 간 친밀 총 23문항, 세대 간 삼각관계 총 8문항, 세대 간 융합-개별화 총 7문항)을 사용하였다. 역 채점 처리과정을 거쳤으므로, 세대 간 친밀은 점수가 높을수록 더 친밀한 것을 의미하며, 세대 간 간섭은 점수가 높을수록 간섭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세대 간 삼각관계는 점수가 높을수록 삼각관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되며, 세대 간 융합-개별화는 점수가 높을수록 좀 더 개별화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정경연(2007)의 연구에서 .86, 하위영역별 내적 일치도는 .61~.94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90, 하위영역별 내적 일치도는 .51~.94로 나타났다.

####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전병제(197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적인 문항 5개와 부정적인 문항 5개로 총 10문항이며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항상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 문항은 역 채점 처리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허재홍(2009)의 연구에서는 .86으로,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 주관적 안녕감

이 척도는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 (1985)이 개발하고, 조명환과 차경호(1998)가 한국판으로 번안한 삶의 만족도 척도와 조명환과 차경호(1998)가 사용하고 설진미(2006)가 수정한 정서경험 빈도척도를 말한다. 정서경험 빈도 척도는 긍정적 정서경험 빈도를 물어보는 4개의 정서와 부정적 정서경험 빈도를 물어보는 4개의 정서로 이루어져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5문항으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주관적 안녕감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설진미(2006)의 연구에서는 .84로,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먼저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자기분화가 딸의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여대생의 자기분화와 세대 간 가족관계가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여대생의

자기분화와 세대 간 가족관계 하위 요인들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회귀분석과 관련하여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추정치의 허용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 보았다.

### 결 과

모의 자기분화, 여대생의 자기분화, 세대 간 가족관계, 자아존중감,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본 연구에서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어머니와 딸의 자기분화 총합은  $r=.32$ , 여대생의 자기분화 총합과 세대 간 가족관계 총합은  $r=.39$ 로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여대생의 세대 간 가족관계 총합과 여대생의 자기분화 하위 요인별 상관을 보면, 정서적 거리두기는  $r=.44$ , 정서적 반응성과 자기 입장 견지 능력은 각각  $r=.23$ 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여대생의 자기분화 총합과 여대생의 세대 간 가족관계 하위 요인별 상관을 보면, 세대 간 삼각관계와 세대 간 융합·개별화는 각각  $r=.38$ , 세대 간 친밀은  $r=.28$ 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자기분화 총합은 여대생이 지각한 세대 간 가족관계와 낮은 상관( $r=.07\sim.16$ )을 보이고, 여대생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련성도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대생의 자기분화와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련성을 보면, 여대생의 자기분화 총합은 여대생의 자아존중감과  $r=.42$ , 주관적 안녕감과는  $r=.37$ 의 유의미한 정

적 상관을 보였다. 여대생의 자기분화 하위 요인들과 자아존중감은 자기 입장 견지능력  $r=.46$ , 정서적 거리두기  $r=.41$ , 정서적 반응성  $r=.24$ 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여대생의 자기분화 하위 요인들과 주관적 안녕감은 정서적 거리두기  $r=.38$ , 자기 입장 견지능력  $r=.33$ , 정서적 반응성  $r=.27$ 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여대생의 세대 간 가족관계와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련성을 보면, 여대생의 세대 간 가족관계 총합은 여대생의 자아존중감과  $r=.45$ , 주관적 안녕감과  $r=.53$ 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여대생의 세대 간 가족관계 하위 요인들과 자아존중감은 세대 간 친밀  $r=.45$ , 세대 간 융합 개별화  $r=.19$ 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여대생의 세대 간 가족관계 하위 요인들과 주관적 안녕감은 세대 간 친밀  $r=.54$ , 세대 간 융합 개별화  $r=.40$ , 세대 간 삼각관계  $r=.23$ 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여대생의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안녕감과  $r=.61$ 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모의 자기분화가 딸의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자기분화로 딸의 자기분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F$  통계값은 13.17, 유의확률은 .000으로 어머니의 자기분화 점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딸의 자기분화 점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t=3.63, p=.000$ ), 딸의 자기분화 점수 총 변화량의 10%가 어머니의 자기분화 점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 $n=132$ )

		어머니					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어 머 니	1 ER																
	2 IP	.35**															
	3 EC	.37**	-.05														
	4 FO	.56**	.08	.35**													
	5 sum	.84**	.49**	.65**	.76**												
딸	6 ER	.38**	.23**	.20*	.08	.37**											
	7 IP	.15	.22*	.06	-.04	.14	.46**										
	8 EC	-.03	.02	.12	-.02	.06	.28**	.07									
	9 FO	.25**	.22*	.19*	.10	.30**	.56**	.33**	.32**								
	10 sum	.26**	.24**	.22*	.08	.32**	.81**	.62**	.60**	.79**							
	11 X1	.03	.14	.06	-.11	.07	.21*	.26**	.36**	-.02	.28**						
	12 X2	-.00	.04	.01	.12	.11	-.08	-.04	.12	.18*	.08	.01					
	13 X3	.04	.05	.12	-.02	.10	.26**	.15	.29**	.28**	.38**	.30**	.04				
	14 X4	.13	.25**	.07	-.02	.16	.32**	.09	.39**	.28**	.38**	.35**	.21*	.45**			
	15 X5	.03	.16	.08	-.03	-.13	.23**	.23**	.44**	.18	.39**	.85**	.45**	.55**	.61**		
	16 Y1	-.09	.10	.08	-.07	.03	.24**	.46**	.41**	.13	.42**	.45**	.14	.09	.19*	.45**	
	17 Y2	-.01	.14	.06	-.00	.09	.27**	.33**	.38**	.10	.37**	.54**	.06	.23**	.40**	.53**	.61**

\*\* $p < .01$ , \* $p < .05$

ER: 정서적 반응성, IP: 자기입장 견지능력, EC: 정서적 거리두기, FO: 타인과의 융합, sum: 자기분화 총합, X1: 세대 간 친밀, X2: 세대 간 간섭, X3: 세대 간 삼각관계, X4: 세대 간 융합·개별화, X5: 세대 간 가족관계 총합, Y1: 자아존중감, Y2: 주관적 안녕감

표 2. 모의 자기분화가 딸의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 $n=132$ )

예측변인	B	SE	$\beta$	t
모의 자기분화	.36	.10	.32	3.63***

$R^2$ (수정된  $R^2$ )=.10(.10),  $F=13.17$ \*\*\*

\*\*\* $p < .001$

여대생의 자기분화, 세대 간 가족관계가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의 자기분화 하위요인들과 여대생이 지각한 세대 간 가족관계 하위요인들이 여대

생의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자기분화 하위요인들과 세대 간 가족관계 하위요인들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하여 단계적 중

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과 관련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되는데(Marsh, Martin, James, & Richard, 2004),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나머지 변인들의 VIF지수를 확인해 본 결과, 1.20~1.91까지 분포하여 다중공선성 진단 기준을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관련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을 보면, 중다회귀분석 결과, 세대 간 친밀은 여대생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변량의 2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8, p < .001$ ). 즉 여대생이 자기노출과 상호존중을 표현하는 가족 관계라고 지각할수록 여대생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입장 견지능력을 지닐수록, 즉 자신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고, 타

인의 압력에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3, p < .001$ ). 세대 간 친밀에 자기입장 견지 능력이 추가될 경우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10% 증가되어 전체 변량의 3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적 거리두기가 심하지 않을수록, 즉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 방어하려는 행동들, 인간관계에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행동, 자신의 감정에 대한 부인 등을 덜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0, p < .001$ ). 정서적 거리두기의 추가는 자아존중감 변량의 7%를 증가시켜 전체 변량의 3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융합된 두 사람의 관계에 개입하는 세대 간 삼각관계( $\beta = -.19, p < .05$ )가 높을수록 여대생의 자아존중

표 3. 자아존중감에 대한 여대생의 자기분화와 세대 간 가족관계 하위 요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검증하기 위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n=132$ )

종속변인	단계	예측변인	$\beta$	SE	t	$R^2$ (수정된 $R^2$ )	F
자아 존중감	1	세대 간 친밀	.48	.03	6.07***	.23(.22)	36.83***
	2	세대 간 친밀	.39	.03	5.07***	.33(.32)	29.90***
		자기입장 견지능력	.33	.07	4.24***		
	3	세대 간 친밀	.27	.03	3.49**	.40(.39)	27.38***
		자기입장 견지능력	.34	.07	4.66***		
		정서적 거리두기	.30	.06	3.92***		
	4	세대 간 친밀	.32	.03	4.01***	.43(.41)	22.94***
		자기입장 견지능력	.36	.07	4.97***		
		정서적 거리두기	.34	.06	4.48***		
		세대 간 삼각관계	-.19	.10	-2.48*		

\*\*\*  $p < .001$ , \*\*  $p < .01$ , \*  $p < .05$

표 4.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여대생의 자기분화와 세대 간 가족관계 하위 요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검증하기 위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n=132$ )

종속변인	단계	예측변인	$\beta$	SE	$t$	$R^2$ (수정된 $R^2$ )	F
주관적 안녕감	1	세대 간 친밀	.54	.06	7.11***	.29(.28)	50.49***
	2	세대 간 친밀	.46	.07	5.83***	.34(.33)	31.69***
		세대 간 융합·개별화	.24	.25	3.07**		
	3	세대 간 친밀	.41	.07	5.12***	.37(.36)	24.02***
		세대 간 융합·개별화 자기입장 견지능력	.24 .18	.24 .15	3.13** 2.46*		

\*\*\* $p<.001$ , \*\* $p<.01$ , \* $p<.05$

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대 간 삼각관계의 추가는 자아존중감 변량의 2%를 증가시켜 전체 변량의 4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를 보면, 중다회귀분석 결과, 세대 간 친밀은 여대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여대생의 주관적 안녕감 변량의 2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54, p<.001$ ). 즉 여대생이 자기노출과 상호 존중을 표현하는 가족 관계라고 지각할수록 여대생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대 간 개별화될수록, 즉 중요한 타인에 대해 지나치게 책임감을 느끼거나 그 대상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관계 안에서 능동성을 지니며 자율적으로 기능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4, p<.01$ ). 세대 간 친밀에 세대 간 융합·개별화가 추가될 경우 여대생의 주관적 안녕감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5% 증가되어 전체 변량의 3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 입장 견지 능력의 추가는( $\beta = .18, p<.05$ ) 주관적 안녕감 변량의 3%를 증가시켜 전체

변량의 3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추후 양육의 주체가 될 여대생 딸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자기분화의 세대 간 전이가 일어나는지, 여대생의 자기분화와 여대생이 지각하는 세대 간 가족관계가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자녀 발달에 미치는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력을 살펴본 많은 연구들이 주로 아동기나 중·고등학교 시기까지를 연구해 왔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범위를 뛰어넘어 성인 진입 시기까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자기분화와 세대 간 가족 관계의 영향을 모두 살펴본 것도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세대 연구에 그치지 않고 모녀 한 쌍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각 연구문제에 대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자기분화는 여대생의 자기분화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여대생이 지각한 세대 간 가족관계,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성은 낮았다. 그러나 여대생의 자기분화와 세대 간 가족관계는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역사적인 관점(historical viewpoints)보다 가족 관계에 대한 현재의 지각이 개인의 기능(functioning)과 더 밀접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Bray et al., 1987; Williamson & Bray, 1988; Harvey & Bray, 1991, 재인용).

둘째, 어머니와 딸 간의 자기분화의 세대 간 전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 두 변인 간의 회귀분석을 한 결과, 어머니의 자기분화는 딸의 자기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Bowen이 주장한 개인의 자기분화 수준이 부모의 자기분화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다세대 전수과정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즉 자기분화 척도가 낮은 부모는 자녀에게 투사 방어기제를 통해 통제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자녀의 분화 수준도 낮아지게 된다는 Bowen의 가족체계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셋째, 여대생의 자기분화와 세대 간 가족관계 하위요인들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본 결과, 세대 간 친밀할수록, 자기입장 견지 능력이 높을수록, 정서적 거리 두기가 낮을수록, 세대 간 삼각관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hung과 Gale(2006)의 연구에서 유럽계 미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 모두에서 자기 입장 견지 능력이 자아존중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언

변인으로 드러나고, 타인과의 융합은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론이나 연구 결과 및 예측과 다르게 삼각관계의 부정적인 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삼각관계에 연류된 것이 높은 자아존중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화된 정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지배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Fleming과 Anderson(1986)의 연구 결과도 본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모든 척도들을 역 채점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해석(예: 세대 간 삼각관계 점수가 높을수록 세대 간 삼각관계가 낮은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여대생의 자아존중감과 세대 간 삼각관계의 상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r = .09$ ) 회귀분석 결과 추가 설명력이 2%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왔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의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표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지 추후 연구를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Jenkins, Buboltz, Schwartz와 Johnson(2005)의 연구에서는 타인과의 융합이 심리·사회적 발달과 역방향의 관계를 보였고, Chung과 Gale(2006)의 연구에서는 타인과의 융합과 우울의 관련성이 역 방향으로 나와 이들은 집단주의 문화인 한국에서는 오히려 타인과의 융합이 적절한 개인적 기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정경연(2007)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경우에 세대 간 융합과 세대 간 삼각관계 등을 세대 간 친밀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고, 최인재(2009)는 응집성 수준이 가장 높은 ‘밀착된 가족’ 분류가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가 좋은' 혹은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깊은'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Olson 등(1983)의 분류방식에서 이러한 '밀착된 가족' 형태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는 그 관계의 정도가 지나쳐 청소년기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본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이상적인 융합 정도에 관하여 명확한 조작적 정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는데(Jenkins et al., 2005; Johnson, Thorngren, & Smith, 2001; Chung & Gale, 2006, 재인용) 앞으로의 연구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융합이나 삼각관계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어느 정도부터는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지, 자율성이 침해되고 지나치게 융합된 상황 속에서도 친밀한 관계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등에 대해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여대생의 자기분화와 세대 간 가족관계 하위요인들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본 결과, 세대 간 친밀할수록, 세대 간 개별화될수록, 자기입장 견지능력이 높을수록 여대생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비슷하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 간 가족관계가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이정희 등(2007)의 연구에서도 세대 간 친밀과 세대 간 융합·개별화가 대학 생활 적응과 약간 높은 연관성을 보였고, Bray 등(1987)의 연구에서도 세대 간 친밀할수록, 세대 간 개별화될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났다. 이는 세대 간 삼각관계와 융합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의 학교 적응이 떨어진다는 것을 밝힌 Smith 등(1998)의 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친밀성(즉 세대 간

친밀이 높고, 정서적 거리두기가 낮음)과 개별성(즉 자기 입장 견지능력이 높고, 세대 간 개별화가 높음) 모두가 정신건강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많은 선행 연구들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율성'이나 '개별성'보다 '관계성'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김동직, 1999; 장성숙, 2003; 최인재, 2006; 한소영, 신희천, 2009; Bao & Lam, 2008), 이는 부모-자녀 간의 유대 관계를 중시하고 깊은 유대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찾으며 심리적 발달을 이루어 가는 한국 문화(최인재, 2005)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로 인해 개별성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다른 많은 연구들에서도 부모와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를 함께 나눌 때 부모와의 분리·개별화나 자율성의 발달이 촉진된다고 하였다(Campbell, Adams, & Dobbs, 1984; Greenberg, Seigel, & Lietch, 1983; Josselson, 1988; 최인재, 2005, 재인용). Bowen(1994)도 자기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화(individuality)와 함께함(togetherness)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는데 이상을 통해 자율성·독립성·개별성이 관계성과 상반된 특징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개념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Williamson(1981)도 원 가족에서의 개별화가 다른 가족으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애정이 있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둘 간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Kagitcibasi(2005)도 인간에게는 자율성과 관계성에 대한 공통된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는 것을 언급하고, Tamura와 Lau(1992)도 어떤 문화든 개인의 최상의 적응을 위해서 개별화와 연결성의 과정이 둘 다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특별한 문화적 맥락에 따라 선호하거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 문화와 연결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Chung & Gale, 2006). Perosa, Perosa와 Tam(2002)의 여자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대생들의 정체성 획득이 그들의 부모와 친밀한 느낌을 갖으면서도 독립적이고 유능하다고 느낄 때 촉진되었는데, 이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연결과 분리의 균형을 경험함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상담에 적용해 볼 때, 서구 문화권에서는 심리적 갈등과 문제의 원인이 자기 정체감이나 개인의 독립을 확립하지 못한 것에 있다고 이해한다면, 한국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정서적 단절이나 미숙한 관계 형성에 원인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최인재, 2006).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를 비롯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일체감 형성과 관계의 향상을 돕는 측면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개별성과 조화를 이룬 친밀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한 가족 상담과 부모 교육 시,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들은 자녀 출생 직후부터 성별에 따라 자녀를 다른 방식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력도 그에 따라 다를 것으로 가정되어 왔다(노안영, 강영신, 2006).

Osborne과 Fincham(1996)은 이성 부모-자녀 관계가 동성 부모-자녀 관계보다 취약하다고 밝혔고, 전연진(2002)의 연구에서도 부모-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 행동이 자녀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장미혜 등(2011)의 연구를 보면, 성인 진입기 자녀의 주거 독립에 있어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들의 주거독립은 크게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딸의 주거독립은 반대하고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들보다는 딸이 위험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을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고 하였지만, 이 외에도 아들과 딸을 대하는 기본적인 인식 차이 때문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아버지와 아들도 표집 하여 세대 간 가족관계에 대한 지각과 그것의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모의 자기분화와 딸의 자기분화의 상관성이 유의미하게 나왔지만 상관 정도는 .32로 크지 않다. 이는 표집 집단의 영향이나 Bowen의 자기분화 개념이 원래 서구의 백인 가족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것이어서(Gushue & Constantine, 2003) 이 척도가 우리나라 문화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연구자들의 의견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신혜섭, 2002; 이선혜, 1998), 무엇보다 Bowen은 분화가 훈련된 치료자들의 관찰을 통해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Miller, Anderson, & Keala, 2004) 이렇게 자기 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그것의 상관으로만 자기분화의 세대 간 전이를 살펴본 것이 이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Klever(2003)의 연구에서 양적 연구보다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했을 때, 세대 간 융합된 수준과 핵가족 기능(부모와

자녀 각각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기능 및 부부 기능)의 높은 관련성을 확인하였는데, 앞으로 관찰이나 인터뷰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고안하여 세대 간 전이 현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외에도 자녀의 자기분화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변인이 이전 세대의 자기분화 수준 외에 또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자기분화와 자아존중감의 관련성, 자기분화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련성 외에도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의 높은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기분화가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 영향도 미치지 않지만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여 자기분화, 세대 간 가족관계에 대한 지각과 주관적 안녕감이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보이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 대상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 학생생활연구소를 이용하거나 분명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해 본다면 개인의 내적인 적응에 미치는 자기분화나 세대 간 가족관계의 영향력을 보다 더 분명하게 탐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Bray 등(1987)의 연구에서 심리 치료를 받는 집단과 일반 대학생 집단을 비교했을 때 건강 부적응(health distress)에 미치는 가족의 영향력이 전자에서 더 컸는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볼 수 있는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의 지표로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을 이용하였는데

좀 더 다양한 실질적인 적응 지표와 심리적 문제 범주까지 확장하여 살펴본다면 대학생들의 내적인 적응 뿐 아니라 실제적·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가족관계의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여섯째, 자녀와 부모를 함께 표집 하여 세대 간 가족관계 패턴에 대한 지각이 이론에서 말하는 바처럼 세대 간에 유사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와 다른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Aquilino(1999)는 세대 간 관계에 대한 아동과 부모 두 세대의 관점을 비교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세대 간 가족관계 패턴을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대 간 가족관계 패턴이 전수된다는 Bray, Williamson과 Malon(1984)의 주장을 직접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쌍 연구를 통해 가족 패턴의 세대 간 전수를 증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곽윤영, 정문자 (2010).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 연구, 21(3), 121-141.
- 김갑숙, 전영숙, 이철우 (2009). 청소년의 부모 애착, 자아분화,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 치료학회지, 17(1), 209-224.
- 김광수, 김수아 (2006).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 체계유형에 따른 자아분화 정도 및 의사결정의 차이. 한국초등교육, 17(1), 269-291.
- 김동직 (1999). 문화적 맥락에서 본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

- 학위논문.
- 김순기 (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상인 (2003).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12, 77-91.
- 노안영, 강영신 (2006).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 설진미 (2006). 대학생의 지속적인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섭 (2002). 보웬가족치료이론과 한국적응에 대한 고찰. 생활과학연구, 7, 193-201.
- 이선혜 (1998). 한국에서의 Bowen 이론적응에 대한 고찰: 자아분화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6(2), 151-176.
- 이수정, 이은진 (2002).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지표상 성 차이와 부모-자녀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2), 75-92.
- 이은희 (2011).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과 심리적 부적응: 자기 통제력과 문제해결방식의 역할. 청소년학 연구, 18(12), 157-180.
- 이정희, 정경연, 유희정 (2007). 세대 간 가족관계와 자아분화 및 자아존중감이 대학생 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14(5), 407-429.
- 이지민 (2010). 가족 건강성, 자아분화, 대인관계와 대학생 우울 간의 관계구조. 상담학 연구, 11(3), 1271-1287.
- 장미혜, 정혜숙, 마경희, 김여진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성숙 (2003). 한국문화와 현실역동상담의 상담자-내담자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147-160.
- 전병제 (1974).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 107-124.
- 전영주 (1998). 삼 세대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과 성인 자녀의 우울증.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3(1), 22-45.
- 정경연 (2007). 부모 및 자녀의 자아분화수준과 아동이 지각한 세대 간 가족관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경연, 심혜숙 (2007). 부모 자아분화와 아동 자아분화 및 세대 간 가족관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8(6), 119-138.
- 전연진 (2002). 삼 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근호 (1999). 한국인의 주관적 안녕과 정서의 조절. 사회과학연구, 6, 27-86.
- 조명환,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 48집. 서울: 집문당.
- 조영경 (1999). 어머니와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 및 신경증적 경향성의 관계.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인재 (2005).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 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징-부자유친 성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59-1076.
- 최인재 (2006).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고찰. 상담학 연구, 7(3), 761-773.
- 최인재 (2009).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자아



- 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가  
족응집성의 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청  
소년학연구*, 16(4), 1-23.
- 하상희 (2007).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의 세대  
간 전이.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상희, 정혜정 (2008). 자기분화의 세대 간 전  
이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  
향. *대한가정학회지*, 46(7), 95-108.
- 한소영, 신희천 (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자녀 관계에서의 본 심리적 욕구 만족감  
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  
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439-  
464.
- 허재홍 (2009). 가족주의 가치관이 자아존중감  
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10(4), 1769-1782.
- Allison, M. D., & Sabatelli, R. M. (1988).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as mediators  
of identity and intimacy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1), 1-16.
- Anderson, S. A., & Sabatelli, R. M. (1995). *Family  
Interaction: A Multigenerational developmental  
perspective*. Allyn and Bacon.
- Aquilino, W. S. (1999). Two views of one  
relationship: Comparing parents' and young  
adult children's report of the quality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4), 858-870.
- Aquilino, W. S. (2006). Family relationships and  
support systems in emerging adulthood. In J.  
J. Arnett & J. L. Tanner (Eds.), *Emerging  
adults in America: Coming of age in the 21st  
century* (pp.193-21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Arthaud-Day, M. L., Rode, J. C., Mooney, C. H.,  
& Near, J. P. (2005). The subjective well-  
being construct: a test of its convergent,  
discriminant and factorial valid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74(3), 445-476.
- Bao, X., & Lam, S. (2008). Who makes the  
choice? Rethinking the role of autonomy and  
relatedness in Chinese children's motivation.  
*Child Development*, 79(2), 269-283.
- Bartle, S. E., & Anderson, S. A. (1991). Similarity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levels of  
individuation. *Adolescence*, 26(104), 913-924.
- Bowen, M. (1994).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ray, J. H., & Harvey, D. M. (1992). Intimacy  
and individuation in young adult:  
Development of the young adult version of  
the personal authority in the family system  
questionnair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6(2),  
152-163.
- Bray, J. H., Harvey, D. M., & Williamson, D. S.  
(1987).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hips:  
An evaluation of theory and measurement.  
*Psychotherapy*, 24(3), 516-528.
- Bray, J. H., Williamson, D. S., & Malon, P. E.  
(1984). Personal authority in the family  
system: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to  
measure personal authority in intergenerational  
family process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0(4), 167-178.
- Bucx, F., & Van Wel, F. (2008). Parental bond  
and life course transitions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Adolescence*, 43(1), 71-88.
- Chung, H., & Gale, J. (2006). Comparing self-  
differenti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etween Korean and European American

- studen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8(3), 367-381.
- Chung, M. J., & Yuh, J. I. (2009). Effects of individual and social factors on children's affective problems and self-worth.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3), 71-82.
- Diener, E., Emmons, R., Larsen, R.,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Eliason, M. V., & Rubin, L. J. (2001). Differentiation of self and major depressive disorders: A test of Bowen theory among clinical, traditional, and internet groups. *Family Therapy*, 28(3), 125-142.
- Fleming, W. M., & Anderson, S. A. (1986). Individuation from the family of origin and personal adjustment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2(3), 311-315.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olnick, W. S. (2003). *The Psychology of parental control: How well-meant parenting backfir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
- Grych, J. H., & Fincham, F. D. (1993). Children's appraisals of marital conflict: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1), 215-230.
- Gushue, G. V., & Constantine, M. G. (2003). Examining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self-differentiation in African American college women.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5(1), 1-15.
- Harvey, D. M., & Bray, J. H. (1991). Evaluation of an intergenerational theory of personal development: Family process determinants of psychological and health distres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4(3), 298-325.
- Harvey, D. M., Curry, C. J., & Bray, J. H. (1991). Individuation and intimacy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and health: Patterns across two generation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5(2), 204-236.
- Helgeson, V. S. (2002). *The psychology of gender*. Prentice Hall. USA.
- Jenkins, S. M., Buboltz, W. C., Schwartz, J. P., & Johnson, P. (2005). Differentiation of self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7(2), 251-261.
- Kagitcibasi, C. (2005). Autonomy and relatedness in cultural context: Implications for self and famil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6(4), 403-422.
- Kim-Appel, D., Appel, J., Newman, I., & Parr, P. (2007). Testing the effectiveness of Bowen's concept differentiation in predicting psychological distress in individual age 62 years or older.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15(3), 224-233.
- Klever, P. (2003). Intergenerational fusion and nuclear family functioning.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5(4), 431-451.
- Larson, J. H., & Wilson, S. M. (1998).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young adult career decision problems: A test of Bowenian therap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1), 39-53.
- Leaper, F. (2002). The socialization of gender. In Grusec, J. E., & Hastings, P. D. (Eds.). *Handbook of socialization*. New York: Guilford

- Press.
- Marsh, H. W., Martin, D., James, P., & Richard, W. (2004). Why multicollinearity matters: A reexamination of 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self-concept,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3), 518-522.
- Masten, A. S., Obradovic, J., & Burt, K. B. (2006). Resilience in emerging adulthood: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continuity and transformation. In J. J. Arnett & J. L. Tanner (Eds.), *Emerging adults in America: Coming of age in the 21st century*(pp.173-9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Murdock, N. L., & Gore, P. A. (2004). Stress, coping, and differentiation of self: A test of Bowen therapy.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6*(3), 319-335.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1), 69-83.
- Osborne, L. N., & Fincham, F. D. (1996).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child adjustment: Does gender matter? *Merrill-Palmer Quarterly, 42*(1), 48-75.
- O-Yang, Y., & Wu, L. (2012). An exploration on the causal model between parent's self-differentiation and adolescent's general health. *Bulletin of Educational Psychology, 43*(3), 567-590.
- Peleg, O. (2005). The relation between differentiation and social anxiety: What can be learned from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7*(2), 251-261.
- Perosa, L. M., Perosa, S. L., & Tam, H. P. (2002). Intergenerational systems theory and identity development in young adult wome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7*(3), 235-25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 Skowron, E. A., Holmes, S. E., & Sabatelli, R. M. (2003). Deconstructing differentiation: Self regulation, interdependent relating, and well-being in adulthood.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5*(1), 111-129.
- Skowron, E. A., & Schmitt, T. A. (2003). Assessing interpersonal fusi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new DSI fusion with others sub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9*(2), 209-222.
- Smith, J. B., Ray, R. E., Wetchler, J. L., & Mihail, T. (1998). Level of fusion, triangulation and adjustment in family of college student with physical and cognitive disabilitie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1), 29-38.
- Tuason, M. T., & Friedlander, M. L. (2000). Do Parents' differentiation levels predict those of their adult children? And other tests of Bowen's theory in Philippine samp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27-35.
- Tamura, T., & Lau, A. (1992). Connectedness versus separateness: Applicability of family therapy to Japanese families. *Family Process, 31*(1), 1-14.

- 31(4), 319-340.
- Weiten, W., Lloyd, M. A., Dunn, D. S., & Hammer, E. Y. (2009). 생활과 심리학(제9판)[*Psychology applied to modern life: adjustment in the 21st century*]. (김정희, 강혜자, 이상빈, 박세영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Wichstrom, L., & Holte, A. (1995). Fusion in the parent relationship of schizophrenia: Part of a symposium on family and schizophrenia. *Psychiatry*, 58(1), 28-43.
- Williamson, D. S. (1981). Personal authority via termination of the intergenerational hierarchical boundary: A new stage in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4), 441-452.
- Williamson, D. S., & Bray, J. H. (1988). Family development and change across the generations: An intergenerational perspective. In C. J. Falicov (Ed.), *Family transitions: Continuity and change over the life cycle* (pp. 357-384). New York: Guilford Press.

1 차원고접수 : 2012. 9. 30.

수정원고접수 : 2012. 11. 26.

최종게재결정 : 2013. 1. 2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elf-differentiation and the effects of the self-differentiation,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hip on the self-esteem, subjective well-being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Hye Weon Kim**

Ewha Womans University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elf-differentiation from mother to her university daughter, and the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hip on the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32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mothers. The results were as follow; 1) The correlation analysi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others' self-differentiation total and daughters' self-differentiation total. In addition, we found that daughters'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showed meaningful correlation with their self-differentiation total and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hip total. 2) Mothers' self-differentiation influenced daughters' self-differentiation. 3)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demonstrated that intergenerational intimacy, the ability to take I position, emotional cutoff, and intergenerational triangulation exhibited a significantly contribution to self-esteem in order. Further, intergenerational intimacy, intergenerational fusion-individuation, and the ability to take I position exhibited a significantly contribution to subjective well-being in order. Finally, the study's limits and further discussion were suggested.

*Key words :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self-differentiation,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hip, self-esteem, subjective well-being*